

구글 프린트, “모든 책정보를 인터넷에서”

진통 겪는 책의 디지털화

구글 이용자 ‘온라인상 행동’ 유출 우려

글_허선

작년부터 시작된 구글 검색엔진의 새로운 검색프로그램 ‘구글 프린트’에 미국 출판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도서검색 서비스로 네티즌이 검색어를 치면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 리스트를 찾아주며 출판사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구체화되었고, 미국 내 도서관들과 출판사들은 도서관 이용에 대해 관심 증대와 출판도서의 판매 증가를 기대하였다. 반면,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저작권과 구글 검색엔진 사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프로그램 중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자 미국 출판계는 구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 구글 프린트

구글 프린트는 세상의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구글의 목표에 부합하여 수백만 권의 책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출판사 프로그램과 세계의 유수 도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 프로젝트로 나뉜다.

먼저, 출판사 프로그램은 구글이 출판사로부터 받은 책 리스트를 스캔하여 구글 검색에 해당 책에 대한 정보를 실어주고 출판사들이 구글의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출판사는 구글에 출간된 서적이나 PDF 파일을 보내고, 구글은 이 책을 스캔하여 구글 인덱스에 올려놓게 된다. 그 결과 각각의 구글 프린트의 검색결과에는 그 책의 제목과 작가, 책커버 사진 그리고 검색어가 들어 있는 발제문의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된다. 검색된 책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작권, 차례 그리고 온라인서점 정보가 나와 있고, 하단에는 네티즌의 검색어에 해당되는 광고 사이트가 나와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네티즌이 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클릭수에 대비하여 출판사가 이익을 배분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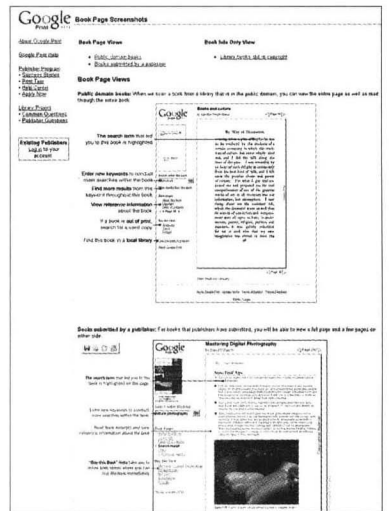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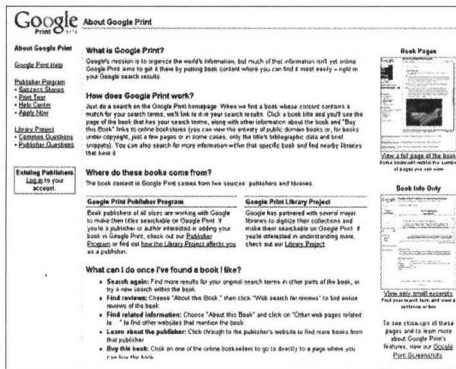
다음으로 도서관 프로젝트는 미시간대학, 하버드대학, 스탠퍼드대학, 뉴욕시립도서관, 옥스포드대학이 참여하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 또는 일부를 스캔하여 구글 검색엔진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스캔된 책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것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책의 전문을 살펴볼 수 있고 저작권에 해당되는 책들은 그 책의 일부만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글 프린트에 대한 반응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유럽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구글 프린트 서비스에 대해 미국문화에 대한 유럽 언어의 권위를 보호할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독일,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AF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19개국의 문화장관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디지털 도서관 설립에 합의했고 1차적인 상품보다는 문화적 독특성을 살린 시청각 자료와 서비스 상품의 구축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 내 반응은 긍정적인 측과 부정적인 측으로 나뉘었다. 긍정적인 측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한 도서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판매 증가를 기대하는 출판사들이다. 이들은 거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데 전혀 돈이 들지 않은 점과 자신들의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검색어 관련 광고에서 잠재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은 출판단체들과 저작권에 민감한 출판사들이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출판사들이 구글 프린트의 마케팅 혜택을 본다 해도 이는 엄연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구글 프린트는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출판사 프로그램과 세계 유수 도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 프로젝트로 나뉜다. 구글 프린트 서비스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구글 홈페이지.

보고 있다. Cnetnew.com에 의하면 미국대학출판협회는 구글이 각각의 출판사에 독점적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스캔(복사)하려는 점과 협회 소속 출판사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저작권이 살아 있는 책에 대해서는 오직 간략한 책 정보와 몇 줄 정도의 구절을 보여주는 정도일 것이며, 혹은 구글 프린트 출판사 프로그램을 탈퇴하는 출판사의 책은 도서관에서 스캔된 책이라도 구글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출판협회 이사 기브러 씨는 구글이 맨 먼저 저작권이 설정된 저작물의 전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면서 책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법정이 구글의 편을 들어준다면 책 디지털화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검색엔진에게도 허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글 도서관 검색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문제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출판 저작권과 관련해 대학협회와 출판사들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문제는 구글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이는 구글 웹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 때문이다. 구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을 살펴보면 구글 검색엔진의 이용자 계정에서 실행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구글 검색엔진 사용자들의 온라인상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도서관협회의 윤리 규정은 도서관들은 도서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제3자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글의 계정을 이용한 도서관 검색이 자칫 도서관협회에서 권고하는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비밀을 보장하는 윤리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구글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고 당분간 도서관 서적에 대한 스캐닝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검색의 제1인자로서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검색엔진의 욕망에 제동을 건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의 디지털화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진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구글 프린트 프로그램의 행보를 살펴보면 우리 출판계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주필**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반응을 보였다. 미국문화에 대한 유럽 언어의 권위를 보호하지는 것이었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물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